**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1~10/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 클린턴 오버/김연주 | 히어나우시스템 |
| 2 |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3 |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 문일수 | 운주사 |
| 4 | 설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1권,2권/합본) | 설우 스님 지음 | 사유수 |
| 5 |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 김성철 | 오타쿠 |
| 6 |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불교의례의 시대도상 | 강영철 | 꽃피는아몬드나무 |
| 7 |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9 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 모음 | 강종미 편역 | 해장각 |
| 8 |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 도법 지음 | 불광출판사 |
| 9 | 기본을 다시 잡아야겠다:무심하고 담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 법인 산문집 | 디플롯 |
| 10 | 죽창수필:요즈음,당신의 마음 뜨락은 어떠한가 | 운서주굉/연관 | 불광출판사 |

책세상

# "무량한 선행은 궁극적 진리로 돌아간다"

〈萬善〉 〈一心〉



만선동귀집 총송
진우 스님 강설
2만2000원 / 조계종출판사

**영명연수 선사 저작 〈만선동귀집〉**
**진우 스님, 용흥사본 소장하며 인연**
**틈나는 대로 번역하며 SNS에 연재**
**문답 114조 구성된 '선교일치 개론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우 스님**은… 1972년 강릉 보현사로 출가한 후 강릉 관음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백운 대강백을 은사로 수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완도 신흥사 · 광주 관음사 · 담양 용흥사 주지, 백양사 총무 소임 후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사서실장, 호법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대행을 역임했다. 불교신문사 사장, 제8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현재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좋은 것이 생기면 싫은 것은 저절로 생긴다. 영원하지 않는 고락의 분별 속에서 중생은 '좋다 싫다' 하며 고락을 윤회(輪廻)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苦)가 낙(樂)이 되고 낙이 고가 되는 고락의 분별이 돌고 도는 삶을 살고 있다. 좋다는 것과 싫다는 것의 질량은 똑같다. 이를 업(業)이라고 한다. –25쪽

오늘도 분별하지 않고 중도(中道)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도 함께 할 일이다. –32쪽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다 해도 인연 연기에 따라 완벽하게 인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그렇게 보고 듣지 않고, 좋다 싫다 하며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토(淨土)이다.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마다 묘용이 아닐 수 없다. –35쪽

참자비는 물에 빠진 이를 우선 구하여 옷과 먹을 것을 주는 행이다. 그 다음 다시는 물에 빠지지 말 것을 타일러서 스스로 물에 빠지지 않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50쪽

기실 경전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렵게 설법하지 않으셨다. 당시 언어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을 전했고, 당대 선지식들도 여러 방편으로 불법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법안종의 제5대 조사이자 정토종 제6조인 영명연수 스님 역시 다양한 방편으로 불법(佛法)을 대중에게 전한 대승불교의 고승이다. 선 · 교와 염불을 두루 아우르며 사상적 폭이 매우 넓었던 연수 스님은 만년에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장하며 선과 염불의 겸수를 말했으며, 저녁에는 늘 행도염불(行道念佛, 걸으면서 하는 염불)을 했다고 전해진다.

연수 스님이 선풍(禪風)을 일으킬 무렵은 당대 말기로 정치 · 문화 · 경제 · 사회 · 종교 등 각계각층이 혼란한 시기였다. 융성했던 선종도 종파의 특징과 우열을 논하였다. 선교의 대립적 구도로 싸웠고, 선종 각 종파 간의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연수 스님은 불교 종파뿐만 아니라 선종 간에도 간격을 좁히기 위해 '일심(一心)' 이라는 가르침으로 모든 종파를 회통하며, 전체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런 연수 스님의 대표적 저술이 100권에 달하는 대작인 〈종경록〉이다. 이를 3권 분량으로 압축해 요약한 것이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이고, 이를 다시 게송으로 요약한 것이 '총송(總頌)' 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펴낸 〈만선동귀집 총송〉은 연수 스님이 전했던 사상의 요체를 담아낸 '총송' 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다. 문답식으로 총 114조로 구성된 〈만선동귀집〉의 '총송' 을 진우 스님은 총 4장으로 나눠 해설했다.

'만선동귀' 라는 일구(一句)는 영명연수 스님의 사상의 요체다. 실제 연수 스님은 〈만선동귀집〉에서 "이름을 빌려 묻는다면 항하사와 같은 수로 대답할 수 있거니와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만선동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시 진우 스님은 이 같이 풀어낸다.

**"무량한 선행을 '만선(萬善)'이라 한다. '동귀(同歸)'라 함은 부처의 길로 함께 돌아간다는 뜻이다. '만선동귀(萬善同歸)'라는 말은 세간 및 출세간의 무량한 선행으로 일심(一心)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진우 스님이 보이는 강설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법문도 "지금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흐름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진우 스님의 강설집은 〈만선동귀집〉의 난해함은 걷어내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마음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며 성냄, 화, 분노 등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수행인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만선동귀집 총송〉을 통해 그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싫고 나쁜 것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매사에 감정을 얹지 말라. 좋다 하는 감정을 내지 않아야 싫고 나쁜 감정의 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하면 저절로 평안이 찾아온다."** –27쪽

**"계를 어기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때문이다. 욕심은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다. 즐겁고 기쁜 마음은 상대적으로 괴롭고 슬픈 인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과보가 생겨서 고통과 괴로움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 – 57~58쪽

이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좋은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스님은 쉬운 언어로 차분히 설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용흥사본 〈만선동귀집〉 소장자라는 인연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100권의 〈종경록〉을 압축시킨 만큼 그 내용이 난해해 일반 대중이 접하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말미에 게송 형태 요약본 '총송' 이 있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변화하는 인연이 되길 바라며 '총송' 에 대한 번역과 해설을 시작했고, 이를 스님의 개인 SNS에 연재해왔다.

진우 스님은 〈만선동귀집〉이 연수 스님이 여러 경전과 여러 종파의 교의를 정리해 다시 체계화시킨 책으로 "선교일치를 말하는 개론서"라고 평가한다.

그렇기에 진우 스님은 " '총송' 부분만 잘 읽고 내용을 제대로 소화시킨다면 〈만선동귀집〉 3권을 전부 읽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종경록〉 100권을 읽은 것과 다름없는 공덕이 쌓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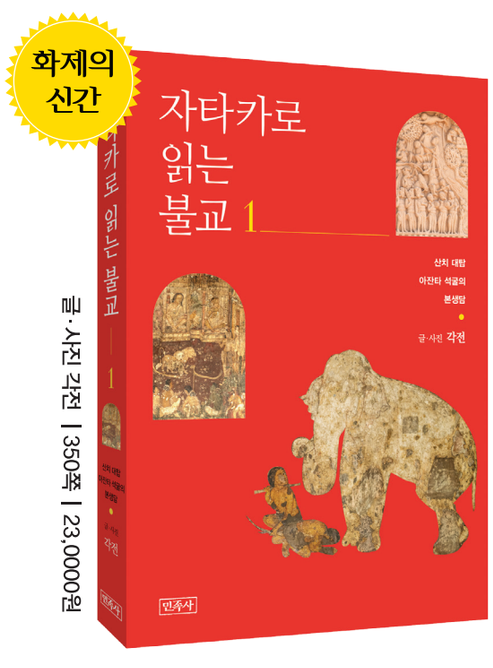
강설집의 머리글에 진우 스님은 이 같은 게송을 남겼다.

**영명연수의 뜻을 알고 싶은가?**
**문 앞에 펼쳐진 호수이니라.**
**햇살 비치니 맑게 빛나고**
**바람 부니 물결이 일어나네.**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화제의 신간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 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